

보건복지 ISSUE & FOCUS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¹⁾

이소영 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
이지혜 인구정책기획단 전문연구원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도입되었음. 2019년 1월부터는 보편적 제도로 확장되었고, 2022년 1월부터 7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용품비,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함.
-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01. 배경

-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월 10만 원의 수당을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됨(아동수당법,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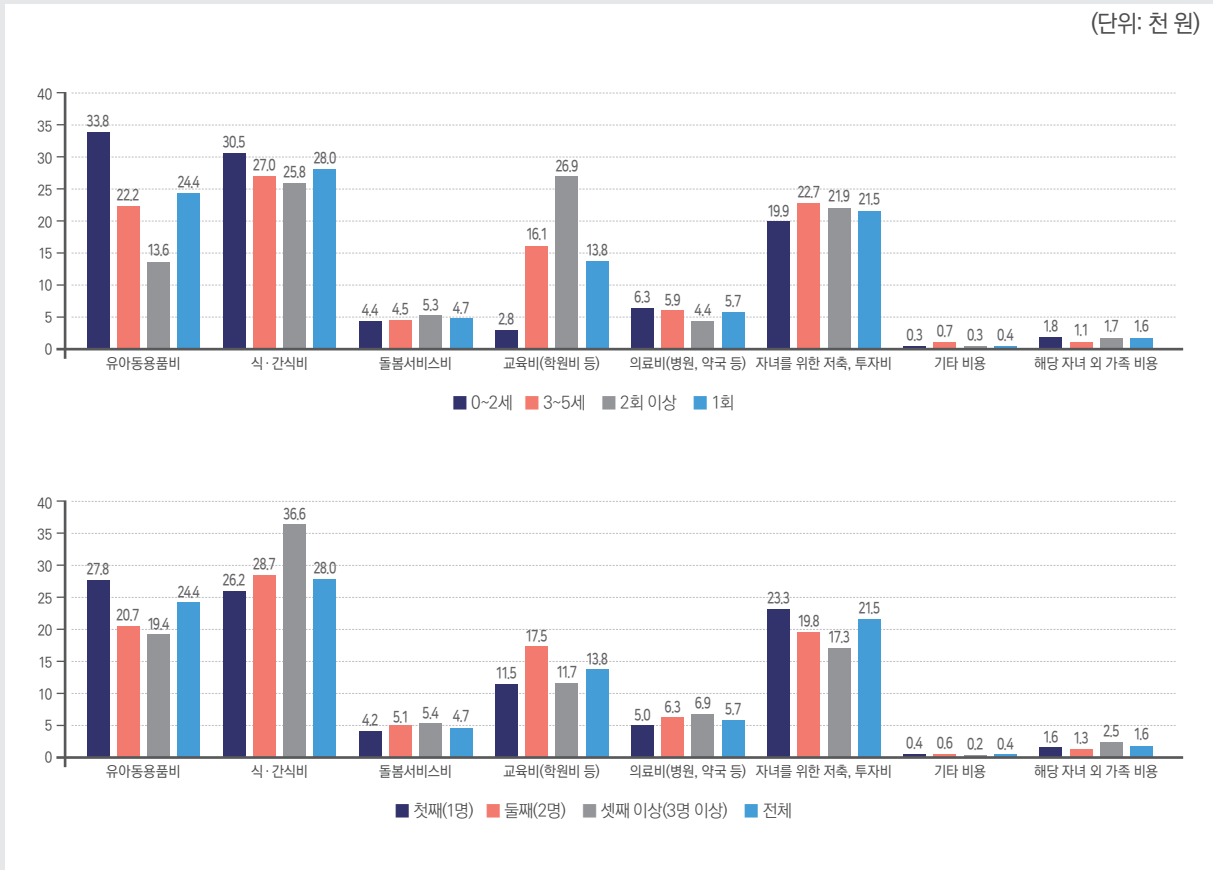
1) 이 글은 이소영, 이지혜, 이철희. (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아동수당은 2019년 1월부터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고 5세까지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되다가 같은 해 9월부터 6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됨.
 - 보편적 제도로 확대한 배경은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국가법령정보센터, 2024)으로, 아동수당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임.
 - 아동수당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의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음.
 - 아동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현재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에서 추진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서, 아동 기본권 보장 영역의 핵심 과제인 ‘영아기 집중 투자’의 세부 정책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이 7세까지로 확대되었음.
- ◆ 이러한 배경하에 저출산 대책으로서 추진된 지 5년이 넘는 아동수당 제도에 관해 아동수당 수급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아동수당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이 글에서는 이소영 외(2023)의 연구에서 실시한 ‘아동수당 대상자 조사’를 활용하였음.
 - 이 조사는 아동수당 수급 경험이 있는 가구의 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아동수당의 효과 및 관련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자녀에 대한 주 양육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온라인 조사 형식으로 실시되었음(IRB 승인, 제2023-0037호).

02. 아동수당 이용 실태

- ◆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0~7세 아동의 아동수당 사용처를 살펴보면, 월 10만 원인 아동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용품비,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대부분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음.
- 아동수당 사용처는 대상 자녀의 연령, 자녀 수 등 가구의 특성별로 차이가 있음.
 -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유아동용품비와 식·간식비에 아동수당을 많이 사용하였고, 연령이 높을수록 학원비 등 교육비에 아동수당을 많이 사용하였음. 신생아나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저귀나 분유 등에 대한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한 자녀 양육 가구는 유아동용품비와 자녀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에 아동수당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세 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식·간식비에 많이 사용하였음. 이는 다자녀 가구에서는 유모차나 장난감, 의류 등을 자녀들이 어느 정도 함께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유아동용품비의 지출이 적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아동수당은 해당 자녀의 월평균 양육비에 비해 적은 금액이므로 학원비나 자녀를 위한 저축과 같은 분명한 사용처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응답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그림 1] 자녀 연령별, 출생 순위(자녀 수)별 아동수당 이용 실태



주: 1) 응답자는 조사 당시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던 사람으로, 자녀 연령별로는 0~2세 546명, 3~5세 546명, 6~7세 364명이며 자녀수별로는 한 자녀 1,000명, 두 자녀 832명, 세 자녀 이상 168명으로 총 1,456명임.

2) 아동수당 금액은 월 10만 원이므로 아동수당 사용처의 수치는 천 원이자 퍼센트(%)로도 해석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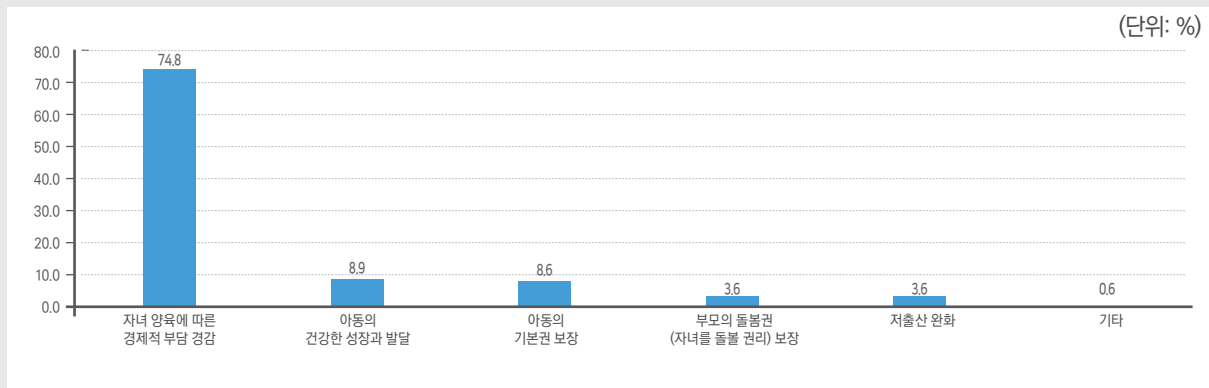
출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33, <표 4-6>의 일부를 저자가 그래프로 작성하였음.

03. 아동수당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생각하는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었음.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나 저출산 완화의 목적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수당의 목적에 대한 인식에서 가구의 특성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

[그림 2] 아동수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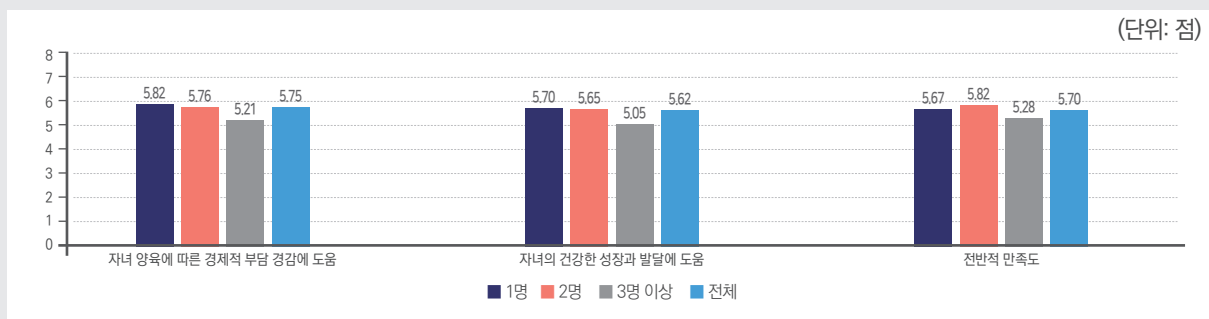
주: 응답자는 조사 당시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으로, 총 2,000명임.

출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2, [그림 4-13].

◆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평가한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와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에 대한 도움 정도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대한 도움 정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남.
 - 자녀 수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도움 정도나 만족도가 낮음. 이는 자녀가 많은 경우 자녀 전체에 대한 총지출 금액은 많으나, 일부 자녀는 아동수당의 대상이 아닌 경우 있어 아동수당 총액과 자녀 양육비 총액 간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보임.

[그림 3] 자녀 수별 아동수당의 도움 정도와 만족도



주: 1) 응답자는 조사 당시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으로, 한 자녀 1,000명, 두 자녀 832명, 세 자녀 이상 168명으로 총 2,00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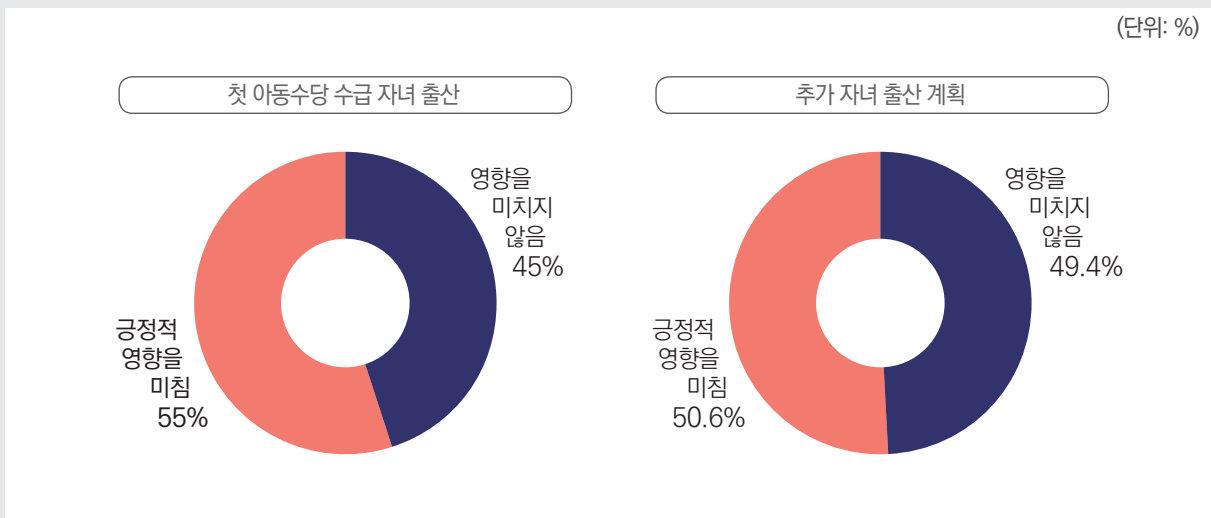
2) 1점(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전혀 만족하지 않음)~10점(매우 도움이 되었음, 매우 만족함)의 평균 점수임.

출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5, <표 4-17>의 일부와 p. 156, <표 4-18>의 일부를 저자가 그래프로 작성하였음.

◆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임.

- 처음 아동수당을 받은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아동수당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아동수당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5%이며, 향후 자녀를 1명 이상 더 가질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 자녀 출산 계획에 아동수당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50.6%로 나타남.

[그림 4] 아동수당의 출산 관련 영향



주: 1)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의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는 첫 아동수당 수급 자녀를 임신하기 전에 아동수당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 380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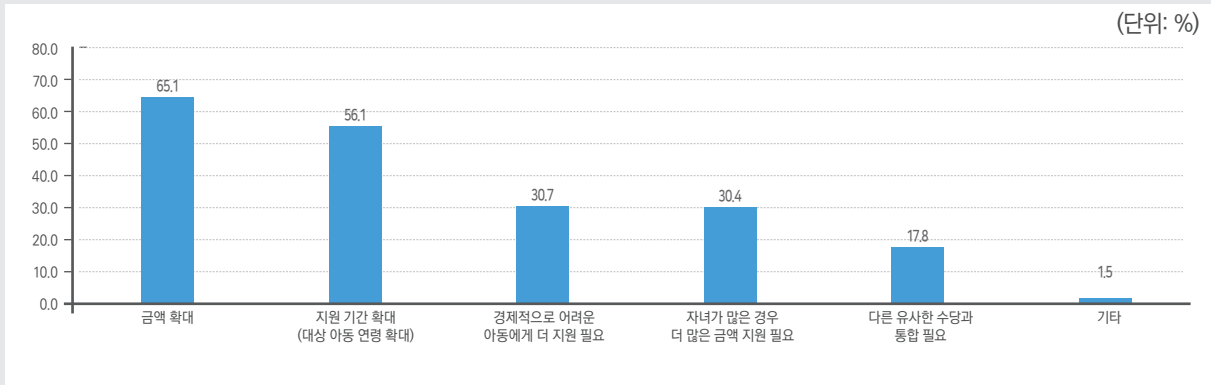
2) 추가 자녀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응답자는 향후 자녀를 1명 이상 더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271명임.

출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7, <표 4-19>의 일부와 p. 160, <표 4-21>의 일부를 저자가 그래프로 작성하였음.

◆ 아동수당 수급 부모가 응답한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중복 응답)에서는 금액 확대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 기간 확대(대상 아동 연령 확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다자녀 추가 지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아동수당 개선 관련 의견에 있어서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모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주거 형태가 자가 아닌 경우, 자녀가 한 명인 경우에 상대적으로 금액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고,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아동수당 개선에 대한 의견



주: 응답자는 조사 당시 자녀에 대한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람으로, 총 2,000명임.

출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이소영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52, [그림 4-13].

04. 아동수당 개선 방향

◆ 아동수당의 목적을 저출산 대응까지 포괄하여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법」에서 규정하는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것임. 조사 결과 아동수당 수급 부모는 아동수당의 목적으로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가장 크게 인식하고 있음.
- 더 나아가 출생아 수 감소와 이로 인한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아동수당은 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통한 아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출산을 선택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라는 최종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음.

◆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과 아동 양육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아동수당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아동수당의 대상을 17세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릴 필요가 있음.
 - 독일(18세 이하, 최대 25세 이하), 일본(중학교 졸업까지), 프랑스(20세 미만), 스웨덴(16세 미만, 16세 이상은 학생수당으로 변경) 등 국외 아동수당과 정책 수요자가 기대하는 지원 연령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지원 연령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정부의 보편적인 현금 지원이 0~1세에 집중되어 있고 가정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도 영유아기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급 대상의 연령 확대가 필요함.

- 2021부터 최근까지 발의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대상을 12세 미만, 13세 미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을 제안(대한민국 국회, 2024)하고 있다는 점과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기준 등을 적용할 때 17세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동수당 지급액은 도입 후 현재까지 월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었는데, 물가 상승률과 국민의 정책 욕구를 고려할 때 지원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차등 지급 방식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 기본권 보장의 측면에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세부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함.
- 아동수당이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며,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과 아동 양육 가구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저출산 대책으로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확대가 필요함.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https://law.go.kr/lslInfoP.do?lsiSeq=206776&ancYd=20190115&ancNo=16249&fYd=20190401&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

대한민국 국회. (2024). 의안현황. <https://assembly.go.kr/portal/cnts/cntsCont/dataA.do?menuNo=600232&cntsDivCd=BILL>

아동수당법, 법률 제19455호 (2023).

이소영, 이지혜, 이철희. (2023).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집필 이소영(인구정책기획단 연구위원), 이지혜(인구정책기획단 전문연구원) 문의: 044-287-8110